

우연인가 섭리인가 (창 40:1-5, 23)

한국의 6. 25 전쟁 중에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절대적인 지지자였던 구소련도 이 안전보장 이사회의 회원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유엔은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던 날, 각국의 대표들이 회의장으로 모이고 있을 때 소련의 대표도 승용차를 타고 뉴욕의 회의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신호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가 이상이 생기더니 급기야는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소련의 대표는 다른 차를 타려고 했지만, 운전기사가 금방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이 허비되었고 소련의 대표가 다른 차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전쟁의 참전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1.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갇히게 된 감옥은 어떤 곳이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창 39:20, 40:3)

2. 옥에 갇힌 [술 맡은 자]와 [떡 그릇 자] 두 사람의 꿈은 비슷해 보였지만, 내용과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준 후에 술 맡은 자에게 복직되어 나가게 되면 자신을 건져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술 맡은 자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창 40:23)

3. 만일 솔 말은 자가 나가자마자 요셉을 건져내 주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나의 생각을 총동원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1) _____

2) _____

4.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 말은 자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얼핏 보면 재앙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주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새롭게 보거나 깨닫게 된 점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1) _____

2) _____

3) _____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만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 번개와 같이 무섭고 쓸모 없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번개는 산불을 일으키며, 벼락으로 전선을 끊어 놓으며, 여러 건축물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번개가 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니다. 하지만 이 요란한 천둥소리는 세상에 있는 식물들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번개가 하늘에서 우르릉하고 울릴 때에 생기는 뜨거운 열로 인하여 질소는 빗방울에 녹습니다. 질소가 용해된 빗방울은 온 대지를 축축히 적십니다. 무서운 폭풍 후가 지나간 후에 공기에서 신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식물에서 주신 비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없이 보이는 번개로 하여금 식물이 살 수 있는 비료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대하여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적용]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 주님, 요셉의 잊혀진 2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듯이, 우리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을 가슴에 새기며, 뭔가 특별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도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